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뿐 아니라 그 복을 이웃에 나누는 그리스도의 일군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2월 9일 (토) 제 1717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신앙지수 따라 행복지수 결정...사회참여도 활발

#### 퓨리서치, 25개국 대상 설문조사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하게 살며 행복하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영역이 확장됐다. 퓨리서치는 최근 전 세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일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며 금연과 같은 행복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의 시민 참여 활동이

나 투표권 행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Religion’s Relationship to Happiness, Civic Engagement and Health Around the Worl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ion in a congregation is a key factor) 고 보도했다.

### 정기적 예배 참석자, 금연·지역사회 봉사·투표에 적극적

신앙생활의 강도와 질에 따라 우리의 행복지수나 건강지수가 결정된다는 설문조사연구는 그동안 다른 설문조사나 연구 등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금연이나 비만이 아닌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장수에 이르기까지 신앙함수에 따라 그 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이라는 습관 형성을 먼저 살펴본다.



미국인 중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85%가 금연하고 있다. 반면에 무종교인들은 74%가 그리고 그다지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72%에서 멈추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설문 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회중이나 교우와의 관계형성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구촌 상황도 같은 성향을 보여주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일수록 금연하고 절주하는 경향이 19개 국가 중 16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존 신앙지수에 따른 행복지수 결정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힘을 얻어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나갔다면, 이번 설문은 수평적 관계 다름 아닌 교인들 간의 만남과 나눔을 핵심 함수로 밝혀냈다는 사실이다.

행복지수 결정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교회나 교단에 소속돼있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일예배에 출석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가 라는 종교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일한 주제를 갖고 보고된 최근 일련의 설문 결과들에서 들어오고 있는 결론이다. 결국 종교생활의 강도나 질이 상회할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이번 설문에서 참가한 25개 국가 중 12-9개 국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 보고서에 2명의 학자의 보고를 인용해, 행복지수 형성에 있어서 공동체나 사회적 지지가 사뭇 상당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일수록 좋은 경우이건 나쁜 상황에서건 정보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임채운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참으로, 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하듯이, 복지나 행복 지수 형성에서 사회적 지지나 후원은 절대적이다”, (Robert Putnam of Harvard University).

퍼트남 교수는 10여년 전에, 미국내 복음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신앙 형태를 보고, “혼자서 불령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불령을 친다”며, 복음주의자들이 보여주는 공동체성이야말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미국을 살찌우는 긍정적 함수”라고 이미 제시했음을 정도다.

그렇다면 범죄나 부정이 만연된 국가의 경우, 행복지수는 어떻게? (3면으로 계속)

### 이중언어 구사, 주입식 아닌 유대감 고취로!

#### 이코노미스트, 이민자로서 자녀에게 모국어 물려주기 위한 방법 보도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알아듣잖아, 그렇지?” 덴마크 출신 엄마와 영국인 아빠를 가진 소녀는 고개를 고덕인다. 필자가 공항에서 만난 부부는 런던에서 아이를 이중언어 구사자로 기르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아빠는 덴마크어를 전혀 하지 못하니 딸에게 덴마크어로 말하는 사람은 엄마뿐이고, 그나마도 딸은 영어로 대답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모국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특히 이민자로서 자식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은 괴롭다.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이민을 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길러내는 비법을 알아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진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해외에서 자녀에게 모국어를 물려주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소개해준다(Expats often struggle to pass on their languages: The trick is to engage children’s hearts as well as their minds).

#### 가족 및 타문화와 유대감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인지능력 뛰어나...높은 업무 적응력과 집중력, 치매도 늦어

어린이들은 언어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와도 같다. 하지만 피상적인 노출만으로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꽤나 많이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자주 말해야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추가로 언어를 익히려는 동기, 필요 또는 욕구가 없는 아이의 경우 듣거나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아

이들의 뇌는 이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충분히 바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자녀세대에서 모국어를 사라지기 십상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13.7%이며, 이 수치는 4.7%보다 낮았던 적이 없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 (D.Min), 교회음악학박사 (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장상당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별 우표)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성화의 답보(踏步)와 성숙의 미흡(未洽)



김성국 목사 (킨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주 역사상 가장 지루했던 슈퍼볼로 평가받는 경기가 있었다. 시즌 중(中)에 매우 공격적인 팀들이었기에 그 내용이 기대되었지만 3쿼터까지 양(兩)팀 모두 터치다운 하나 없었고, 결국 13-3이라는 초라한 점수가 그 결과였다. 승리(勝利)한 뉴잉글랜드는 여러모로 미흡(未洽)했고, 패(敗)한 LA 램스는 내내 답답했다. 이런 운동 경기를 보고 허만 잘 일기 아니다. 성도는 성화되어야 하고 교회는 성숙되어야 하는데 정작 성화의 답보와 성숙의 미흡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복음은 케리그마(κήρυγμα/선포)와 디다케(διδαχή/가르침)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탁월(卓越)한 방식인 케리그마와 디다케 자체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와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도와 교회는 답보와 미흡의 아쉬움을 반복할 것이다. 복음은 마침내 수노디아(συνοδία/동행) 되어야 한다. 수노디아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과 그 부모의 이야기 가운데 나온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συνοδία)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43-44절). 예수님과 동행이 곧 복음과의 동행이다. 복음을 잃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잃었다는 말이다.

동행이 없는 복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필연적(必然的)으로 성화의 답보와 성숙의 미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스스로를 참담(慘憺)케 한다. 그 뿐 아니라 기독교에 적대적(敵對的)인 사람들에게 복음은 현실과 괴리(乖離)된 비역사적(非歷史的) 사변(思辨)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동행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지 않은가. “임신한지 8개월은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뒤뚱거리며 길을 걷는다 말하네. 아가야 돌이 한 걸 가기는 힘든 일이라네...”(박의상).

동행은 즐겁다. 이런 시가 그것을 일러준다. “강변으로 산책을 나간다. 아이 하나가 강아지를 풀어놓고 간다. 강아지가 앞질러 저만치 가다가 아이를 돌아본다. 그리곤 안심이 되는지 다시 저만치 내달린다. 서로 연연중에 머물러 버린 눈짓. 아이가 가는 길이 강아지 길과 겹쳤다. 강아지와 아이가 가는 길을 낫달이 굴렁쇠를 굴리며 따라붙는다. 길이 강변을 계속 이어가니 물이 동행하며 춘춘다...”(정일남).

쉽지 않음과 즐거움이 교차(交叉)하는 동행. 어쨌든 복음과의 동행이 없는 한, 성화의 답보와 성숙의 미흡은 점점 더 심화(深化)될 것이다.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하지만 주관적으로도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기에 복음과의 동행은 미룰 수가 없다. 복음과의 긴밀(緊密)한 동행으로 스스로의 예측(豫測)과 세상의 기대를 뛰어 넘어 성화의 진보와 성숙의 풍성을 함께 이루어 가자.

교회가 학교 도와 하나님 알리는 기회 열어야!

처치리더스.컴, 교회-학교 협력사역 전문가에게 듣는 공립학교 사역 노하우 소개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데 지역 학교보다 좋은 장소는 없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교사, 직원, 관리자에게도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 기업들은 학교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교회가 학교에 도움이 될 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

현재,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학교에 출입금지 돼있어서, 우리 교회는 학교에 도움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으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쓰여 있고, 이것은 이미 학교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은 학교 관리자 들은 협력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신앙공동체에 호의적이다. 함께 나누고 싶은 공동목표는 바로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우리는 지역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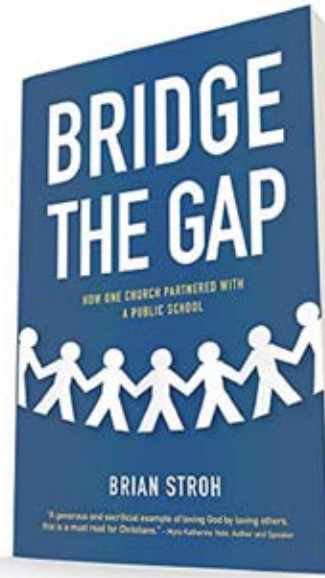
여기 5가지 단계와 3가지 원칙으로 여러분과 교회가 학교에 도움을 주어 하나님께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Bridge the Gap Between Church and School).

5가지 단계

1.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기도해 도 되나고 물어서, 졸업앨범으로 학생과 직원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며 학교를 돌며 학교 주위로 기도 지역을 만들 수 있다.

2. 학교에서 필요한 것 물어보기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교사와 관리자,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책임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물어서 이를 제공할 수 있



믿을 만한 곳인지 학교가 의심하며 보는 의심의 눈초리다. 대부분 과거 사람들이 학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공이 있어 이에 데이고 속은 경험 때문에 이들이 이런 걱정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학교는 믿음이 쌓이기 전까지는 정말 필요한 것이나 바라는

인을 봉사할 때 단순히 이들의 필요만 충족시켜야 한다. 어떤 영적인 토론회나 지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사를 이용해서 이들의 마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과, 설교 외에 이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먼저 신체적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하시는 데 대가이셨다. 그래서 댄스파티를 도와줄 때 학생들에게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댄스파티 남녀 두 사람이 신체적 관계를

학교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5가지 단계 아무 것도 바라지 않기 등 3가지 원칙 준수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제공하려고 한다는 말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는 다음 3단계로 향하는 문, 바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관리자와 회의 준비하기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학습 지도 상담자와 만날 수 있다.

4. 필요를 충족시키기
한번 필요를 충족시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다른 교회와 기업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희망 사항이 뭐예요?”라고 묻기 시작하기
교사와 관리자는 필요한 사항이 정말 많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

들이다. 학생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물을 때 이들은 정말 재미있고 번뜩인다. 대부분의 교사와 관리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 항상 시간과 돈, 에너지가 없어서 못했던 ‘희망 사항’이 있다. 필요 충족은 축복이지만, 희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학부모회에 가입하고, 밴드나 체육 후원자가 되고, 학교 댄스파티를 도와주고, 표준시현 감독자가 되고, 학교관리에 봉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멘토가 되고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기회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야 한다.

3가지 원칙

1. 아무 것도 바라지 않기
이렇게 돼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저변 동기가 있는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것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공책을 준다면, 학생부서에 복음 책자나 전단지들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봉사해 달라고 요청할 때, 교회 티셔츠를 입고 가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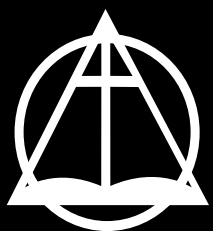
2. 하나님께 문을 여시도록 하기

모든 기회를 ‘설교’할 봉사 기회로 다가간다면, 학교목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학교 직원들은 저변 동기를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봉사와 관련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학교에 학생이나 성

진척시키려고 하면, 공손하게 멈추라고만 해야지, ‘진정한 사랑’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학교 복도나 그 다음 날 마트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이 다가와서 왜 항상 학교에 있다고 물을 수도 있다. 아니면 왜 흔내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목회로 하여금 그 영혼으로 가는 문을 여실 때다.

3. 신뢰를 얻고 지키기
학교 관리자들의 호의는 심혈을 기울여 지켜야 한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9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9년 5월 17(금) - 20(일)
2) 고시 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에스겔 36:22-31
(2) 신약 주해 - 히브리서 12:1-13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대체 신학”을 평가하라.
(4) 설교 본문 - 마태복음 28:16-20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시기를 저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검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iO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9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9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3회 총회기간(5월21일-24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7일-20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속을 예약 할 것.
2) 시험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Rev. Jae Hyun Han / Email: jhanrev@gmail.com
주소: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 전화: (831) 920-704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702) 296-9193, driho@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신앙지수 따라 행복지수 결정...사회참여도 활발

<1면에서 계속>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는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부패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나 성당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다"고 밝히고 있다.

멕시코가 단연코 행복지수에서 선두를 치고 나간다. 종교적으로 활동적인 사람 중 71%-대부분이 카톨릭이지만-이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다. 살인으로 인한 치솟는 사망률, 특히 작년에는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사건들로 기록적일 정도로 사회가 불안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 역시 아주 어두운 사회 행복판에서 58%가 행복을 외치고 있다. 콜롬비아는 정부와 반군(FARC)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아직도 조직 폭력배들로 인한 폭력, 게릴라 공격, 마약 밀매 그리고 부정으로 시끄럽기만 하다.

작년 콜롬비아 대권에 도전한 복음주의적 정치인, 비비안 모랄레스는 "우리는 거의 혼돈에 빠져, 도덕이나 가치가 존중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에도 같다"고 말했으며 "그러므로 용서와 화해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

다"고 말한다.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 행복과 능동적인 신앙의 연관성을 가늠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종교적 공동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



동하거나 이미 신앙을 통해 행복을 경험했기에 더욱 더 만족을 얻기 위해 더 활동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시민활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콜롬비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인 중 42%는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일하게, 멕시코에서도 41%의 개신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커뮤니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민활동 참여지수는 58%로, 자선활동, 스포츠, 노조 등에서 신앙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활동이나 참여는 곧바로 투표로 연결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미국인 중 69%가 중간선거나 대선과 같은 투표에 참가한다. 반면에 교회에 한두 번 가는 미국인은 59%, 무교인은 48%만 투표에 참가한다. 그리고 25개 국가 중 9개 국가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이 바로, "사회적 자본"형성 과정에서 만나게 된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 이중언어 구사, 주입식 아닌 유대감 고취로!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외국어 구사자의 수는 누적되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는 25%에 불과하다. 이민 와서 처음 태어난 세대는 주로 영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모두 구사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영어만을 구사하게 되고, 조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모국어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이 "다국어 기숙사"가 될까봐 걱정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오늘날은 이런 추세가 바뀌어 정부는 각 가정의 언어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나아가 이민자 가정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귀한 자원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를 익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제도적인 압박이다. 아이가 제 2언어로 보내는 시간은 곧 제 1언어에 노출되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부모들에게 모국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모국어가 "대접받지 못하는" 언어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걱정해,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여곤 한다. 아이들에게는 분명 2개 이상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의 어휘력이 한동안

은 양쪽 모두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중언어 구사자들의 인지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복잡한 업무에 잘 적응하고, 집중력이 높으며, 노후에 치매도 늦게 온다는 것이다.

이런 장점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족 및 타문화와 유대감을 갖게 되



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중언어 구사자로 키울 수 있을까? 부모의 모국어가 같은 경우, 집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집 밖에서는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쓰는 식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부모의 모국어가 다른 경우인데, 이 경우 가장 흔한 접근법은 "한 부모, 한 언어" 정책이다. 스위스의 언어학자 프랑소와 그로스장은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 2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해놓는 방식을 추천한다.

독일의 언어학자 사빈 리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리틀은 부모가 강요하는 모국어가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에게 스스로 해당 언어와의 정서적 유대를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틀의 아들 역시 엄마의 언어인 독일어를 포기했다가 다시 시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녀는 아들에게 스스로 언제 독일어를 쓸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들은 독일어를 못 하는 아버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엄마와 단둘이 하고 후 방과 후교실로 가는 차 안에서 독일어를 쓰겠다고 결정했다. 모자는 영어와 독일어가 혼합된 아들의 특이한 언어를 둘만의 어휘에 추가해 농담거리로 삼곤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그 역시 하루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독일어 영상 을 시청하는 것은 예외라는 규칙도 정했다.

리틀은 원어민을 위한 앱이나 엔터테인먼트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언어는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다. 아이에게 모국어를 물려주려다 실패하는 경험은 고통스럽다. 성공의 비결은 주입식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 시론

### 아픈 기억을 덮어주는 은혜



최해근 목사 (몽고리교회)

근자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로 작년에 있었던 연방대법원 판사 브렛 캐버니 인준건과 버지니아 주지사인 랠프 노담(Ralph Northam) 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35'라는 숫자입니다. 브렛 캐버니는 1983년 고등학교 앨범에 남겼던 글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판사 인준과정에서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주지사인 노담의 경우에는 1984년 의과대학 앨범에 남긴 사진이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 자신이 속한 민주당에서조차 심각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35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 문제가 되어 현재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35년 전의 사건이지만 캐버니 쪽은 틈에이지 때의 일이고 노담 주지사의 경우는 25살, 의과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담 주지사가 흑인분장을 한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유랑극단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민스트렐(minstrel) 극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흥행했던 이 극단이 가지고 있는 단골 레퍼토리는 백인이 흑인분장을 하고 흑인들의 춤을 추며 흑인역양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들의 인격에 흠을 내고 우습게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흑인의 얼굴색으로 분장을 하고 말을 흉내 내는 일은 미국 땅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금기가 된 것입니다. 백인이 동양인의 얼굴로 변장을 하고 영어를 더듬으면서 천박한 몸동작을 극중에서 보이게 되면 동양인들이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며, 백인이 한국인으로 얼굴을 분장한 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엉터리 영어를 하고 외설적인 춤을 춘다면 그런 모습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감정이 결코 편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 작년 10월 23일, NBC 방송에서 아침 뉴스시간을 담당했던 켈리(Megyn Kelly)가 자신이 어렸을 적에는 할로인데이에 흑인 분장을 하고 흑인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고 그런 켈리의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연봉 2천만불을 받았던 켈리는 NBC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35년전 의과대학을 다닐 때 흑인분장을 한 사진이 앨범에서 발견된 후 그 사진의 주인공인 버지니아주지사를 향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취한 노담 주지사는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상대방이 가진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만일 흑인들의 성공적인 삶을 묘사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역양을 바꾼다면 흑인들이 그토록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적인 삶의 묘사가 아니라 무시되고 억눌렸던 노예시대의 삶을 흉내 내며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은 분명 노예시대의 삶을 살았던 흑인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격자라면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를 감추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당의 깊은 곳에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픈 기억과 상처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로 한 해 동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thechoi82@yahoo.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9.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20(Mon), 2019
- 2) Place: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Ezekiel 36:22-31
- (2) NT Exegesis Text : Hebrews 2:1-13
- (3) Thesis Topic : Evaluate "Replace Theology"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 (4) Sermon Text : Matthew 28:16-2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hanrev@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9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9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3r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19).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0, 2019 HILTON LOS ANGELES) through Rev. Jae Hyun Han.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Jae Hyun Han / Address: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Call : (831) 920-7043, E-mail : jhanrev@g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권혁천 목사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의인

동방에서는 일찍부터 광야로 찾아가는 수도사들이 많았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치열한 시험을 받으신 것에 착안한 일인지 모른다. 그리스의 중부에 위치한 동

방정교회 소속인 아토스 산 높은 절벽위에 구멍을 파고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거하면서 지낸 흔적이 많고 일부는 지금도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을 은수자(Hermit)라고 칭하는데 이 말은 광야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되었고, 수사(Monk)-혼자-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왔다.

성프란시스가 수도했던 수바지오산(Monte Subasio)계곡에 있는 수도원(Eremo)도 아시아에서 한참 떨어진 해발 791m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에 가보면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내던 동굴이나 기도하던 장소들이 손때가 묻어있는 모습으로 산재해 있다. 이태리에는 수도사들이 많다. 아주 똑똑한 분들, 공부를 많이 한분들이 깊은 산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기도와 명상,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긴다. 참 놀랍다 싶다. 놀라운 것은 410년 경 코트족의 알라리크가 로마를 향해 쳐들어 올 때 수도원에 있던 여자 수녀들 3천여 명이 로마로 피신하여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자 신부나 수도사들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400년경에

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깊은 산속이나 골짜기 아니면 사막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세상을 등지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다.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는 교회 밖에서 개혁운동을 시행하였고 스페인의 예수회 수사 로올라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개혁의 가치를 들었다. 그런데 사막 한 가운데서나 혹은 깊은 산속이나 골짜기에서 고독하게 성경보고 기도하던 경건 생활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노파심을 갖게 된다. 현재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두세 명이 드리는 새벽 예배의 효용성에 대하여 회의

적인 시각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지 싶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고집해야 한다. 루트는 소돔과 고모라(내 생각으로는 그 도시가 아주 풍요로웠다고 본다. 물이 넘쳐나고 여호와와 동산 같았다고 했기 때문이다(창13:10)의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루터가 아브람을 떠나 그곳으로 찾아갔을까? 그런 지역이었기에 그들은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테고 고로 그들은 더욱 방탕하고 지나치게 되어 동성연애에 심취하는 삶을 고집했을 정도였다. 저들은 영적으로 한 없이 더러웠고 동물적 삶을 추구하였다. 이런 삶에 미쳐 사는 저들을 보면서 루트는 매일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벧후2:7-8). 이런 그를 베드

로는 의인이라고 칭했다. 그런 의인들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신다 싶다. 그렇다면 깊은 산속이나 골짜기 또는 사막에서 고독과 맞서면서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의인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거룩한 자들이라 여긴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더럽혀짐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앞을 지나가는 흑색의 통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수도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당신들의 거룩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니까, 라고 인사하고 싶어진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초등학교 3학년 어린 학생이 교회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어떤 소원이든지 3년만 새벽기도회에 나와 기도해도 다 이뤄진다는 강사 목사님 설교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3년 동안 매일같이 낱쌀을 계산하며 새벽기도회에 나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3년이 지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한다는 사실보다 3년을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했으니 그 기도응답으로 목사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졸업식 날 그 목사님이 학생의 아버지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꽃다발을 안겨주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학생이 아무리 들어보아도 목사안수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새벽기도회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아! 네가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라! 고 기도했지? 맞아! 그런데 네 기도는 지금 하늘나라에 다 저축해 놓았다. 나중에 더 좋은 응답을 주실거다!" 하며 거절된 기도응답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린 학생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속으로 펄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초등학교 졸업한 어린 학생이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3년간의 새벽기도 후에 거절된 기도응답으로 낙심했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 이루어주신 더 좋은 기도응답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더니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간교한 술수를 부리고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장군을 적군의 손에 전사당하게 해서 간음죄와

살인죄 중범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 여인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을 경고하셨다.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이를 치심으로 그 아이는 중범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 밤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제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려야겠는데 얼른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 하는 염려 때문에 왕에게 바로 아뢰지를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본 다윗은 직감적으로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 챘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은 대답합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예복을 갖춰 입더니 성전에 들어가 경배를 드리

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일주일을 계속하던 금식을 중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 행동이 신하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통곡하시더니 이제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어쩐 이니이까?" 다윗이 이렇게 대

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던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어이니와 지금은 기미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며 울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나중에 죽어 저에게로 가겠지만, 저는 결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절대적인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다윗이 일주일간을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아이가 정녕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 그렇지만 후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까? 그 아이가 살려주실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간곡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일편단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한번쯤 봐 주실 수도 있으면만 어찌 그리 대하시는가, 너무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내가 죄가 있지, 아무런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를 치실 이유는 없지 않는가?" 그런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마디 불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기도한 응답이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쁨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 하였다 고 했습니다. 참으로 흘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런 고백이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영국의 조지 5세는 "하나님!

묵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뜻한 바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다가 거절의 응답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절된 기도응답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더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느 것이 우리를 위해 최선임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거절된 기도응답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된 기도는 더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거절되는 기도응답도 응답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거절된 기도응답

(사무엘하 12장 15-23절)

룩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니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NO!라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응답에 대해서 흔쾌한 마음으로 YES!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뭘 달라고 막 조르다가도 엄마가 한 번 "안 돼"하면, 금방 정 얼대던 그 태도를 바꾸어 "알았어요, 엄마" 하고 명랑한 얼굴을 한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NO 하시자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로 조르다가도 다윗은 깨닫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옆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옆질러진 우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NO! 라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NO 하고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거절되는 기도응답에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두드러진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

로 하여금 옆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옆질러진 우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NO! 라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NO 하고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거절되는 기도응답에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두드러진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

로 하여금 옆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옆질러진 우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NO! 라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NO 하고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거절되는 기도응답에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1면에서 계속>  
누가 선을 넘거나 불평하더라도 한다. 관리자들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거나 그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뻔한 '전도'로 수업시간이 중단되거나, 학교 누군가 질 수 있는 짐을 지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축구부가 연습할 때 물을 기부해서 학교 관리인이 축구장 여기저기 흠어져 있는 빈 물병을 줍는 일을 해야 한다면, 학교 관리인은 관리자에게 불평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학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지, 짐이 아니다. 학교에 도움이 주는 기회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학교와 학교 규칙을 예우하고 존중하며 해야 한다. 실제 사례 소개 다음은 우리 교회 길 건너에 있는 고등학교를 우리가 섬기

며 하는 일이다. 학교목회에 필요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글을 달아 함께 공유해줄 바란다. △학교 밴드와 ROTC는 교회 체육관을 사용해서 밴드 캠프나 ROTC 훈련에 쓴다. △학습지도 직원에게 생활 휴대용품을 제공한다. 매해 졸업 파티에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막도록 머리와 화장 전문가를 보내준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학

생과 부모들에게 아침을 제공한다. △교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직원들에게 물과 쿠키, 감자 칩을 제공한다. △교사와 직원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학부모회를 돕기 위해 커피를 제공한다. △위기 대응을 도와서 병원에 있는 심대와 조율하고, 학생-병원-부모-학교 사이의 소통을 돕는다. △학생이 죽으면 친구들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 젊은 목회자와 연결할 수 있고

록 학습 지도 직원과 조율한다. △버스에 동승하는 교사에게 우산을 제공한다. △학교에 곰팡이 문제가 있는 2년 동안 학교 취학 전 프로그램은 우리 보육원에서 이루어졌다. △청년부는 1년 내내 학교 기도 행사에 참여한다. △학교 운동회에 봉사하고 표준 시험을 감독한다. △학교가 수리 중일 때 학교 수업을 교회에서 해오고 있다. △학교는 우리의 도움이 필

요하고 이를 원한다. 그렇다면 기다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글의 필자, 헤일리 웨리(Haley Wherry)는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블루 리지(First Priority Blue Ridge)'의 이사다. 이 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와 교회를 연계하도록 노력하며, 테네시 북동쪽과 버지니아 남서쪽에 위치한 학교 선교 사들로서 학교에 복음을 전하려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사환 의식**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환 처럼 충성했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사환 처럼 청지기로서 충성했다는 것이다. 모세는 그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모세의 전 일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충성스런 종이였다. 완악하고 고집스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하면서, 저들의 불신앙에 대해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 가나안의 목전에서 '여기까지가 네 일이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가자' 하실 때에도, 왜요? 라고 섭섭한 말 한마디 없이 순종했던 지도자가 모세였다. 그에게는 늘 자신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사환'으로서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고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데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충

신앙의 인격이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높여주신다. 사람들은 그 향기에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끝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사람은,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한다. 그러나 말끝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그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게 될 것이다.  
 교회의 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소유권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은 대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게 유익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손에 하는 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에게 별

어선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다. 예수님의 삶에도, 비록 아들이지만,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는 아들로 서 행하였음을 보게 된다. 아버지의 맡기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들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한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때마다 자기 것이 아니요,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늘 시인하셨음을 본다.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당신이 그저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시인하며 다니셨다.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중국에 사업차 투자하였다가 지난 8년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돈도 빌렸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회에 나가 기도하면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는데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쓰라린 고난과 실패가 찾아오나요?  
 -애나하임에서 박 장로

**A:** 구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 차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빌립이 가까이 와서 해석해주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해당하는 그 어린 양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해석하여 깨우쳐 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으려면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제반 문제들도 잘 해석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이 좌우됩니다. 자연은 밤과 낮의 연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시련도 절대 긍정의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실패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질병이나 아픈 상처와 추억도 다 합동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합니다. 이것

**인생은 해석...실패 통해 지혜와 지식 배워**

에 대한 유명한 성경구절이 로마서 8장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의 모든 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안 좋게 보이고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까지 포함됩니다. 절대 선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절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로님께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된 한 청년이 주머니에 한 약병을 넣고 뉴욕의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실패로 낙심하여 자살하기 좋은 으스스한 장소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골목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다리가 다 잘린 한 장애인인 타이어를 다리에 감고 작은 손수레를 밀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애인은 청년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일터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청년은 그 때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장애인에 비하면 얼마나 사지가 건강하고 좋은 학력에 많은 경험이 있고 가족과 집도 있는 사람인데 한번 실패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더니..."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약병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바보같이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쉽게 자포자기를 하려 하더니..."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실패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자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불행을 바꾸어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사업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배웠다고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주인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

- 신앙의 인격과 향기

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날까지 그 권세를 빼앗지 않으셨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는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듯, 그런 권세를 누리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몸부림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원 없이 마음껏 주를 위해 사환처럼 충성했으니 그에 합당한 상 받는 일만 남았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손뚱으로 벽을 긁다가 손뚱이 빠지거나 죽음이 두려워 공포에 질린 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스스로 그 마음의 완고함을 품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저승사자에 끌려가듯 원망하며 떠나는 세상 사람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인격과 향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늘 의식하며 사환처럼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 이것은 어떤 배움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인격이며 향기이다. 그런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에 대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주 영터러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복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구체화되고 드러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신자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집의 사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자기 소유의식이 지나치게 강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달라고 할 때마다 억울한 생각, 본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도 닮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부어주실 수 있겠는가? 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건만, 하나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쓸 수가 없다면, 충성꾼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다. 일평생 충성스런 종으로 모세와 같이 사는 길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사환처럼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든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충성은 모세의 충성을 넘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그를 가르친 선생님을 인정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고 높이며, 종이 주인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높이며, 자식이 부모를 알고 섬길 때,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소속과 위치**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소속과 위치를 잘 구별하여 처신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인격이 된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공부하고 논문을 쓸 때, 어느 책에서 보았다고 항상 자기가 얻은 지식의 출처를 밝힌다. 논문을 쓰면서 주를 닦아주므로, 남의 책을 보고 내가 그분의 것을 가져왔다고 써 놓는 것이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초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 (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 4.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 4.목회안수 증명서
  - 5.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6.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2월 28일

**제 출 처**

1. 우편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미성대학교 제4대 총장 초빙공고**

미성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총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총장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1.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능력 있는 분
  2. 미주 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3. 미주 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분, 혹은 미주 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Letter 2매 이내) 1부
  3. 대학 발전 및 운영계획서(Letter 10매 이내) 5부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보내실 곳**  
 Rev. Sung Ho Cho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접수 마감**  
 2019년 1월 21일(월) ~ 3월 16일(토)까지 도착 분

-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밀봉하여 송부 요망)
  2.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수 목사**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68. 최진하(1889-1967)

최진하는 1889년 3월 3일에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가 남녀 동포 26명과 함께 유학을 목적으로 차이나 선편으로 도미한 때가 1916년 9월 30일이나 27세였다.



최진하

1918년 1월 24일에 게재된 북미 지방총회 학부부 조사에 따르면 최진하는 1918년 1월 상항의 아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으니 도미한 후 어학공부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1918년 8월 29일 신한민보에 “먼저 실력을 양성하면 독립은 우리의 소유”라는 글을 게재한 대로 그의 유학의 목적은 독립에 있었다. 아래에서 그의 글을 소개한다.

오호라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 우리 민족이 치욕을 당한 지가 벌써 8개 성상이 되었구나. 볼지어다, 그동안 우리의 당한 형편을 생각하니 저 고국강산에 있는 노부모 형제 유아들은 비옥한 토지와 화려한 강산과 풍성한 금은 동철이 구비하였을 지라도 모두 원수에게 내어 팔고 오늘 충청도 내일 경상도 모래 북간도 이리저리 래왕하며 요행히 발볼

일 곳을 찾으려 하며 고국을 이별하고 외양에 표류하는 우리들은 이곳 저곳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원치 않은 의인의 치소를 종종 받으니 나라 없는 민족이라 어디 간들 대접받고 평안하며 유족한 생활을 맞볼소냐. 할 일 없이 세상에 용납되 못할 것 밖에 또다시 없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나 없는 민족이로다.

옛날 유대국이 멸망한 후에 그 민족이 분국을 떠나 수초 생활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러 곳에 표류하여 능욕을 당하며 전대를 주는 밑

은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민족이 문명하면 따라 문명한 나이 되고 민족이 야만이면 나라도 따라 야만이 되는 것은 저 삼척동자에게 물음지라도 지체 없이 대답하리다.

어느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처지와 같으면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함이 어디 있으며 속박 편하기 도무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으리오마는 지금 우리 대한인의 심리와 학술 기예 등을 관찰하게 되면 나라 독립은 둘째요 내의 한 몸을 처치할 방법이 완전히 못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노라.

시험하여보라. 우리의 원수가 물러가고 자유 독립할 기회를 당하였다 가정하면 정부 대관 조직에 참여할 이 몇 분이며 항해술을 맡을 이 몇 분이며 기차업을 주관할 이 몇 분이뇨. 이에 대하여 한두 분이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민족 정도가 이 모양이고 독립이니 무엇이니 하여도 우

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 받아 1922년 10월까지 사역하였다. 1917년 11월 상항한인감리교회의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그가 연설하였다. 이날 두 번의 연설이 있었는데 김영훈 목사는 중국어로 연설을 하였다. 본 교회 담임목사인 이대위 목사는 개회 이후 기도 순서만 맡았다. 이듬해 8월 상항 한인감리교회가 맨티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였는데 그는 3달러를 헌금했다.

최진하는 1920년에 '한인교회회를 창구하시요'라는 광고를 신한민보에 게재한 것으로 보아 본보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본보의 사장 겸 주필은 민찬호 목사였고 내용은 논설, 합중국경제사, 만국주일공과, 성경공부, 천문개요, 문답편, 교회소식, 잡보 등이었다.

그해 11월 25일 하오 8시에 오(0) 스트리트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에서 첫 순서로 찬송가 235장을 부른 후 두 번째 순서



최진하 묘비

인 기도순서를 맡았다. 그 후 사회가 취지를 말한 후 상항 국어학교 생도의 찬미, 사회자의 성경봉독, 최피터와 황만도의 감사절의 문답, 최에다와 황엘리사벳과 하소정의 노래, 정인과의 권설, 전봉운의 음악, 이대위 목사의 축사에 폐회하였다.

해롭게 한 점과 아들과 남편을 잃은 한국 여성을 위해 기도해줄 것과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목사, 전도사, 장로, 교사 등이 감옥에서 전도한 것과 지식 계급에서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더욱 많은 것과 하나님이 한국을 동양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중국을 전도하여 천하를 전도하도록 한 것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리라고 역설했다.

1923년 1월에 개최한 상항한인감리교회 에벳 청년회는 최진하를 학무국장으로 선출했다. 그해 회장은 하명원이었다. 이듬해 6월에는 6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O. C. 밍글도르프 선교사를 환영했고 1925년 7월에는 상항한인감리교회에서 8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총회장 최진하의 사회로 16년간의 사역 후 안식년을 맞아 도미한 마우리 선교사를 환영했다.

최진하는 1등석에서 찾았는데 그는 3등석을 타고 한인 유학생과 함께 입항했다. 그는 독립 운동자를 협조하다가 감옥에 갔었는데 의외로 환영에 감사하였고 조선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조선에 영광 되는 일을 많이 할 것과 조선의 학교와 교회가 흥왕하여간다는 점을 말할 때는 청중이 많이 감동했다. 다른 순서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찬송가 120장을 부른 후 이대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상항한인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 독립에 목적 두고 유학, 1917-1922년 상항한인감리교회 전도사 파송 1926-33년 시카고 이주...1935년 상항한인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선임

리의 실업은 말만 되고 효과는 없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그런즉 의양에 유리하며 고와 락을 같이하는 우리 중에서 주초 될 이도 있고, 동양 지체될 사람도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각각 형편 따라 재질을 따라 준비하면 자유 독립은 우리의 영구한 소유물이 되겠고 우리의 원수 저 동호(일본을 통칭하는 말)는 태양 빛에 안개같이 소멸하니 곧 우리 대한의 독립 기념일이 되리다. 새날을 당하여 자유 중 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며 저 일본 같은 섬나라는 섬이 변하여 소양이 되리다.

대한 혼을 가슴에 품은 우리 동 제군이여, 태극기를 활신 모두 달고 대한제국 만세, 만세, 만만세 하리다.

상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최진하는 1917년 10월에 상항한

폐회 후 참석자들이 연단에 올라 일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이 있었는데 이중 초창기부터 열심과 정력을 다하여 교회를 섬긴 장 씨의 간증이 유별났다.

1921년 2월 16일 하오 6시에 상항한인감리교회에서 최진하가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휴가를 맞아 도미한 후 내한하려던 사무엘 마켓 선교사 부부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는데 뜻밖에 넬리 C. 홀드크로프트 부인 선교사와 랄프 O. 라이너 선교사 그리고 어비슨 박사도 참석했다.

이날 마켓 선교사는 능란한 한국말로 재작년 독립운동을 본 후 한인이 참으로 강함을 알게 된 것과 재미한인들이 내지동포를 동정해줄 것과 독립운동 이후 재미있는 일이 더욱 많다는 점과 한인들이 독립 선언할 때에 외국 선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종교 일과 나랏일을 분리하여 지

최진하는 1926년 1월에 시카고로 이주하여 유한회사에서 재직하다가 1933년에 다시 상항으로 돌아와 1935년에는 양재현과 함께 그가 상항한인감리교회 평신도 대표로 선임되었다. 그해 12월 2일 주일 하오 7시 반에 있는 추수감사절 경축식 때 황사선 목사 주례하에 특별예배에서 그는 기도를 순서를 맡았다. 이듬해 5월 10일 어머니 주일을 맞아 상항과 오크랜드에 있던 한인감리교회가 연합 아우회에서 상항교회 황사선 목사의 주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최진하가 연설을 맡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직책'을 논했다. 나성으로 이주한 최진하는 1940년 1월 다시 상항으로 떠난다. 나성한인기독교교회와 양로원이 중국인 잠수이집 서원투에서 오찬회를 마련했다. 그달에 그는 중가당에 있는 리들리한인장로교회 예배당 건축에 10달러를 헌금했다.

최진하는 1967년에 소천했고, 나성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1995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은 그의 나라 사랑에 미치지 못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cus@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배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서(월-금): 오전 5:30 3월: 오전 11:0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영양예배: 오후 2:00 성경강좌(월-토):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통) 팩스: (213)210-69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새벽: 오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선언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말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LA 복음연합감리교회</h4> <p>담임목사: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성경강좌: 오후 7:00 성경강좌(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회</h4> <p>담임목사: 정상기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5:30</p> <p>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h4>얼바인침례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 오후 7:30</p> <p>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일서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씀찬양)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원: 3655당 24시간 온선</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Tel: 310-370-5500, F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성경도 신앙 (7)

##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라)모반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나랏님'이라고 부른다. 그런 개념은 무지와 맹목적에서 나온 단어이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권장 권리가 있다. 국가나 왕이나 황제나 총독이나 어떤 독재자나 다른 어느 누구라도 폭군적이 되면 그들은 그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명시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나 정부의 임무이다. 국가 존재 이유와 그 기능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것처럼 인류의 유익을 위해 정하여 준 것으로 상전 노릇을 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상전이 되고 폭군이 되는 순간 국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국가 자체가 법을 받아야 한다.

교인들 중에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흑인들은 종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관점이다. 그 이유는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명기 20장 11절을 근거로 함의 후손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군들이 이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따랐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1960년대까지도 그런 생각이 많았다. 심지어 19세기에 알렉산더(C. F. Alexander)가 쓴 찬송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부자는 성안에 있고 가난한 사람은

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하고 화평을 쫓는 시민이어야 하며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더 좋은 특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한 사실이 전부다.  
나)하나님의 진노와 양심에 따른 그리스도인

로마서 13장 5절은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차이이다. 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법을 지키는 중요한 동기가 형벌의 위험 때문이기에, 그들은 많은 경우에 형벌을 받기 이전 선까지 가까이 간다. 예외는 있지만 그들은 "진노를 인하여", 곧 진노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며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진정한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만이 죄가 진실로 무엇인지 알고 죄가 각 사람 삶 속에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 죄에 대해 개인적으

### 국가가 폭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불순종하는 것 법과 질서로 통제 필요성 알아... 양심으로 법 지켜야

그 부자의 문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높고 낮은 사람을 만드사 그들의 신분을 정해주셨네" 그는 사람의 지배층의 구조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을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잘못된 해석이 끼치는 폐해가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정부이며, 위에 있는 권세이고, 또한 권세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정부를 지정하거나 세우지는 않으셨다.

로 집단적인 한계와 범위를 안다. 그러나 비 그리스도인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그 표준들과 결과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다른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법과 질서 편에 있어야 한다.

인본주의자(humanist)들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강력한 법들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로 분명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런 조건들을 마련하고 계심을 안다. 만일에 지나친 자유와 민주적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갑자기 모든 법을 폐지해 버리고 경찰력과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도를 약화시킨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당장 공항 검색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작은 제한들이 없다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는가? 그러므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법과 통제를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younsuklee@hotmail.com

#### 5.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다른 관점들

1)전통적 관점  
전통적인 관점은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 관점은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특권자들 편에 있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주후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제국을 기독교화 속으로 끌어들이려 결심했던 것으로 그 이후 교회는 왕들과 황제들과 군왕들의 친구가 되어왔고 백작과 공작과 귀족들의 친구였다. 그 결과 귀족정치(Aristocracy)의 경향을 가져왔다. 지금도 영국이나 미국의 많은 훌륭한 기독교

#### 2)전통적 관점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사상

가)무정부 상태  
전통적인 관점과 다른 극단은 무정부적인 생각, 곧 제멋대로 날뛰는 식의 민주주의 사상이다. 영국의 시민전쟁(1642-46, 48-52년 사이 잉글랜드의 찰스 1세와 의회와 분쟁으로 일어난 전쟁) 시에 청교도 크롬웰(Oliver Cromwell)과 그 군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제 5왕조 사람들(Fifth Monarchy Men)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자유를 획득하여 일종의 무정부상태를 옹호하고 다녔다.  
물론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우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 그리스도의 향기

지난 연말에 며칠 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러 타주에 다녀왔다. 집을 떠나면 음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한 번씩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답답할 때가 있다. 체한 것도 아니고 배탈이 난 것도 아닌데 아무튼 배가 불편한 그럴 때는 정로환이라는 한국 약이 제일 효과가 있다. 옛날에는 냄새가 강한 까만 환으로 나오던 약이 어느 때부터인가 핑크 빛 당의정으로 나와서 먹기에 훨씬 부담이 덜해졌다. 마침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에 한국 약국을 지나갈 일이 있기에 정로환을 하나 달라고 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당의정이 아니고 까만 환약이 들어 있었다. 당의정으로 달라고 말해야 했던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한 병 다 가져갈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몇 알만 샌드위치 백에 챙겨 넣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항으로 가는 길부터 시작되었다. 공항에 데려다 주러 같이 간 딸이 엄마 가방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도할 것 같다고 난리를 하는 것이었다. 정로환 냄새가 원래 강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구역질나는 냄새는 아닌데 아마 우리 딸에게는 그 냄새가 생소하고 강해서 역겨운 것 같았다. 비행기 옆 자리 손님에게 폐가 될까봐 공항에 내리기 전에 손가방에 있던 정로환을 꺼내서 거기까지 백으로 옮겼다. 공항 검색대에서 러기지 백 안에 넣은 보은주머니가 걸리는 바람에 가방검사를 해야 했다. 가방을 여니 역시 정로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직원에게 미안해서 한국 약인데 냄새가 좀 강하다고 묻지도 않는 설명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어보니 정로환이 들어 있던 가방 주머니에도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방에서 냄새가 날까봐 버리고 싶었지만 혹시 배가 아플지도 모르는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냄새를 막아 보려고 칫솔을 넣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옷장 제일 구석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플라스틱 통도 별 도움이 안 되어서 결국은 머물던 집 차고 한 쪽에 갖다 놓았다. 며칠 지내는 동안 정로환을 먹을 일이 없지 않겠다. 짐으로 돌아오던 날 아침에 집 주인 권사님이 밖에 쓰레기통에 버려줄 테니 놓고 가라고 해서 드디어 그 골칫거리 정로환과 작별을 했다. 집에 와보니 같은 가방에 있던 수면용 안대에도 정로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세탁기에 빨았는데도 그 냄새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로환은 아마 약이 담겨 있는 까만색 유리병 안에 있어야만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 것 같았다.

재미있게도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구절이었다. 정로환 냄새로 시달리고 있는 동안 유머가 가득한 하나님은 내게 냄새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정로환처럼 안 좋은 냄새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냄새는 향기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샤워를 자주 안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향수가 많이 발달했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향수를 뿌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향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날아간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이다.

작은 몇 알의 정로환이 그렇게도 강한 냄새를 풍기는 소동을 겪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야 할 텐데 정로환처럼 인상을 쓰게 만드는 냄새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훼방을 받을 것이다. 감출래야 감출수도 없고 공짜 묶어서 구석지에 숨겨 놓아도 퍼지던 정로환 냄새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사별 넘버5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로서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벡렐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2부예배: 오전 08:45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5:30 새벽기도회: 오전 10:00(화, 토) Tel: (718)265-25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98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986-4040, www.kap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www.kcany.org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회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893-9754, 68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심지어 신학을 잘못 배운 목사님들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겠지”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에나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신학이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라는 무서운 이단 신학입니다.

1. 하나님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인간들 중에 위대하고 훌륭한 성자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는 것입니다.

2.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예언된 대로 (사7:14)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3.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가장 큰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4.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고, 다시 살지 못했고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숭배되고 있습니다.

교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5.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고 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고 했습니다.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중 열방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열방의 회복과 치료위해 사랑과 협력...” 제 12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제 12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글로벌 국제선교·교회연합회: 대표 정운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 주최로 1월 27일 오후 5시30분 30여 민족대표 목회자와 성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그레이스침례교회에서 미국과 한국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메시지에서 Dr. Rick Durst(Gateway Seminary SF Campus Director)는 “열방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각 민족 간의 사랑 실천과 함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추구하자”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전했다.

이어서 한반도 비롯해 미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아메리칸인디안, 필리핀, 중동, 몽골, 라틴, 호주, 아프리카,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 르완다, 우간다, 이란, 러시아 등 30여민족의 중보기도 요청내용과 함께 각국이 당면한 심각한 기도제목들(Prayer Issues)과 회복을 위한 영상발표(presentation)

가 있었으며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각 민족 목회자와 시민들의 뜨거운 통성 연합기도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문 발표에서는 교회, 학교, 사회, 정부, 군인, 젊은 세대를 향한 영적각성, 미국 캠퍼스 복음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 동성애와 낙태 등 창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을 위해 GIM의 선교위원들이 새로 개정한 6개 미국의 안전과 회복의 기도문을 Steve Willhite 목사(콩코드 Parkhaven Community Church)가 낭독했다.

이날 “멕시코의 인근 국경장벽을 확고히 설치해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특별기도문 발표도 있었다.

Faith Kim 교수(Gateway Seminary 다문화교육학 석좌 명예교수, 현 침신대 특임교수)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교회의 신부들이 성도들이 잘 설계해 열방의 회복과 부흥에 참여해야 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김 교수는 대회 전날 열린

Global Christian Women Leadership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여성이 가정과 교회의 설계자의 역할로서의 충실히 감당해 열방에서 복음으로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글로벌 여성 리더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민봉기 목사(산호세 등대교회)의 영적각성 세미나도 있었다.

한국의 기도 요청은 사회자인 Kevin Waldrop목사(Gateway Seminary 교수, 산로렌조 Village Baptist Church 담임)가 발표했다. 월드롭 목사는 “135년전 미국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한국 복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으며, 한국 전쟁과 휴전 이후 북한 상황을 소개하며 “한반도의 가짜 평화 운동은 기독교인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케 하는 위장된 ‘연방제 한반도 가짜 통일 메시지’라고 밝히고 “미국의 복음적 기독교 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침몰하지 않도록 적극 대항해야 하며 한국이 영원히 자유 민주주의 복음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장인 정윤명 목사(GIM 대표)는 “오는 10월 제 15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Global Int'l Missions Rally)가 실리콘밸리 지역의 Iranian Christian Center(Kamil Navai 목사)에서 열린다”며 “미국의 재부흥과 함께 한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여러 민족이 함께 결속해 협력할 것을 전하면서 미국 내의 많은 한인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기사제공:GIM)



제 1회 입법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감독선거는 후보추천→선거인단 구성→즉시 투표 기감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 대표 56명 참석

미주자치연회 제 1회 입법의회가 1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임승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은회관 감독 외 56명의 입법의회 대표가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 은회관 감독은 “수용과 전념”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앞을 향해가는 우리들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료된다”며 “이제는 미주자치연회가 내일을 포커스 삼아 전념하여 과거의 상처를 수용하자. 하나님께서 은혜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은회관 감독은 개회예배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2그룹으로 나눠 상정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수정 보완할 내용들을 자치법개정위원회에 넘겨 다음날 속회해 상정하게 했다.

회의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별다른 이견 없이 모든 상정안을 일괄 통과했다. 그 이후 이번 상정안과는 관계없이 미주자치연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를 기록해 차기 입법의회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미주자치연회 자치법개정위원회가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감독 선거권자를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되 ‘양교구’에서 선거권자를 동시에 ‘추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에 의하면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 추천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 과 평신도 중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 선거인단 추천 △선거인단 선출 즉시 연회석상에서 선거 실시 방식이다. 감독회장 선거는 한국내법 절차를 따른다.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국내와 달리 연회가 개최되는 도중(5월초)에 실시한다. 이의 논의를 끄는 개정안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동부·서부 양대 교구제와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사역보고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회장 한재홍 목사)가 지난 4년간의 사역보고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동 선교회는 11,000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을 교육시켜 각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덕’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약 200여 학교에서 15만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학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으며 주일학교를 주 3회 이상 하는 교회도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범죄율이 줄고 있다는 보고다.

이 사역을 위한 교재비가 권당 50센트, 교사용 7달러가 소요되는데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쇄(2달러)해서 보내

모든 위원회 ‘교구동수원칙’이 있다.

또 △교단탈퇴법 정해 탈퇴방지로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교단을 탈퇴하며 교회재산에 대한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개인이나 소수가 사유화하거나 시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따라 탈퇴 조건을 명확하게 해 이를 막고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외 △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면 교역자 이동 제한(38. 제1조 부담금의 납입 ①항) △입법회 이하의 온라인 회의 인정(37. 제12조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④) △국내 12명의 절반인 입교인 6명으로 개척 가능 △미주감신을 동부부서 서부로 나누는 현행법을 미주감신으로 통일 △입법의회 대표 선출 기준을 기존 50대 미만에서 40대 미만으로 낮춘 점 △과반 등록으로 하던 지방회와 연회 개회 성원을 등록 후 출석으로 변경(입법의회는 제적2/3의 출석으로) △유지재단 등록 의무 신설 △부담금 완납해야 은퇴나 교역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성정하고 통과했다. (기사제공: 기감 미주자치연회)

주고 있다. 매년 참석하는 교사들에게는 교재와 성경, 빵과 마실 것 한 봉씩 지급한다.

한재홍 목사는 지난 4년 동안 약 38만 달러가 현금돼 지금까지 학생교재와 교사용 교재 및 성경 준비를 위해 지출됐으며 현재 잔액은 6000여 달러라고 보고하고 내년부터 십여 차례 정도 약 1만명에게 교육이 또 실시될 예정으로 많은 목사들의 많은 참석과 강의 를 부탁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단비TV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후원금은 미국 GPMSF Bank of Hope 75171918, 57-01 246 Pl. Little Neck, NY 11362(한재홍 목사)로 보내면 된다. (유원정 기자)



제9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단 이. 취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정경희 회장, “힘 합해 무릎으로 가겠다” 제 9대 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행사

제9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행사가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 광명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김인숙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취임 행사는 김호 목사의 기도 후 박순희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김숙영 사모 특송이 있는 후, 정해진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창13:14-18)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는 문아리 목사 사회로 정경희 신임 회장이 취임사를 했다. 정 목사는 “새로 시작하는 9대 회에서는 힘을 합해 무릎으로 가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며 일치단결해 교계에 모범을 보

이고 치유하며 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는 남가주한인회장의 축사와 미주평동 서영석 회장과 LA 총영사 등이 서면으로 축하의 전문을 보내왔으며, 백지영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증경회장) 권다니엘 목사(유나이티드바이블유니버시티대학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류당열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씨니박 시의원 CA민주당65지구 당대표단 선출

부에나팍 씨니박 시의원이 아시안계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CA) 민주당 65지구를 대표하는 지역 당대표단에 선출됐다.

지난 1월 26일 열린 당대표단 투표에서 선출된 박 의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된 지역 당대표단은 65지구를 대표해 캘리포니아 민주당내에서 벌어지는



박영선 의원

일에 대해 결정 및 투표권을 갖게 된다. 65지구는 풀러튼, 부에나팍, 라

팔마, 사이프레스, 가든그로브(일부지역)를 커버하게 된다. 특히 65지구는 최근 아시안계 인구의 유입인구가 늘어나 민주당에서 전략적인 지역으로 간주된다. (기사제공: 부에나팍 박영선 시의원)



# 동부교계 게시판

## east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고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목사 고시가 5월 17(금)-20일(월) 총회장소인 힐튼 LA에어포트 호텔에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 및 총회 인준 정규신학교 M.Div 학위 졸업자나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사람. 고시과목은 필기고시(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와 제출고시(구약 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 면접고시로 나뉜다. 응시 서류는 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혹은 학교장 확인서, 신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소속노회장 추천서,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이력서, 명함판 사진 2장이 필요하며 고시료는 150달러.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831)920-7043 이메일 jhanrev@gmail.com

###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NYRBS, 학장 유상열 박사)이 2019년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여교역학(2년), 신학사(4년), 석사(목회학-3년, 선교학, 상담학, 교육학, 교회음악-2년) 마감일은 3월 2일(토)이며 개강일은 3월 4일(월). 통신과정은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nyrbs.org, rbsny.org, 이메일 rbsny2006@gmail.com

▲문의: (917)862-0523, (718)961-3631(fax겸용)

### 뉴욕교협 제 2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제 45회기 제 2차 임·실행위원회가 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새가나안교회(이병홍 목사, 최요셉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29-0909, (718)213-1985

### 찬양 반주자 모집

병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에서 찬양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914)393-1450

### 제 14회 새찬양 축제 오디션

제 14회 새찬양 축제 오디션이 NY는 3월 16일(토) 오후 2시 신광교회, NJ는 3월 23일(토) 오전 10시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열린다. 성악, 피아노, 현과 관악기 등이 대상이며 모든 부문에 솔로 및 2명 이상의 합창이나 협주 등이 가능하다. 오디션 참가곡은 찬송가 및 이미 시중에 악보가 출판된 있는 교회음악으로 한정하며 악보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대상은 3세-12학년. 최종 입상자들은 4월 13일 링컨센터의 브르너 월터 홀에서 연주하게 되며, 실력에 따라서 최종 1등에게 1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홈페이지 www.newpraise.us

▲문의: (917)553-4203

### CCNA 자격증 강의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개최하는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자격증을 위한 강의를 2월 9일(토)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8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강사는 IT관련 전문종사자들. 강의 장소는 Neighbor Plus(2FL, 256 Broad Ave. Palisades Park, NJ)이며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100달러(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수강료 보조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201)461-0909 / www.neighborplus.org



청소년과 청년위한 직업소개의 장 기자회견을 마치고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 왼쪽부터 플러싱 YWCA 김은경 사무총장, 김로미 CMP 디렉터, 김준현 AYV 사무총장.

## 청소년과 청년 위한 직업소개의 장

### 뉴욕청소년센터, CMP, 플러싱YWCA 공동주최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와 CMP, 플러싱 YWCA, NYC DCAS가 공동주최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직업소개의 장이 2월 10일(주일)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후러시제일교회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1일 플러싱 YWCA에서 열려 행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연합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보통 변호사나 의사 등의 직업을 원하지만 공무원직은 안정적이고 좋은 배네피트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CMP(Careers Made Possible) 김로미 디렉터는 "뉴욕시에는 32만5천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중 아시아인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5년내 3만명 이상의 은퇴를 예

상하고 있어 1932년 이래 가장 많은 공무원직이 오픈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MP는 지난해 뉴욕교협을 통해 직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뉴욕시 공무원 구직은 먼저 온라인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통과되면 나중에 시험(civil test)을 보게 된다. CMP는 직업의 종류를 소개하고 응시 절차, 시험 준비, 등록을 도우며 개인적 상담까지 제공한다.

플러싱 YWCA 김은경 사무총장은 "YWCA는 그동안 CMP와 함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등을 해왔으며 이번에는 특별히 청소년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열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부모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다.

강사는 Kadian Outar(뉴욕 시행정국), Megan Rha Esq(전 나소카운티검찰관), 클라라 강(PS376 교장), 리차드리(예산국장). <유원정 기자>

## 형제 동거의 아름다움...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019 신년하례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하 연신원) 미동부동문회 신년하례회가 1월 29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창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회장, 뉴욕나눔의집), 말씀 장재웅 목사(하늘비전교회), 축사 김승환(연세대 뉴욕동문회장), 광고 김영호 목사(미동부생명 의전화), 축도 김병서 목사(갈리교 동북부원로목사회 증경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재웅 목사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시133: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연세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연합과 일치 를 위해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양성하고, 기독교 에큐메니컬 정신의 보루였고 거점이 됐다. 암울했던 시대가운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감사한다"며 "시편기자의 말처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동문들이 하나되어 세상을 향해 삼김과 하나 됨의 모습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회 김승환 회장이 축사하고 김영호 목사의 광고했다.

2부 특강은 김정국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사회로 노순구 목사의 기도 후 박기태 목사가 "새해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기사제공: 연신원 미동부동문회)

## "니눔은 감동 주는 바이러스..."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9 첫 정기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가 지난달 30일, 1월 첫 정기월례회를 갖고 2019년을 시작했다. 이날 지난 연말 총회에서 선출된 이종명 회장 체제로 새 조직을 구성하고 회계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감인한 장로, 설교 이종명 목사, 합심기도 인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최창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마25:40-4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노숙인 차림으로 청빙 교회에 부임한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하며, 또 선물을 베풀 때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며 "니눔은 감동 주는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기아대책 사업이 활성화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이 되자"고 도전했다.

합심기도는 스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회원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폴로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스타 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

교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무는 이종명 목사의 개회기도 후 박이스라엘 목사가 사역보고 및 회계보고를 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2019년에는 '후원아동 배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또 비용절감을 위해 은행과 회계사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전임 회장 유상열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와 회계 권캐더린 목사는 선교여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해 추후 전달하기로 했다.

월례회는 박이스라엘 목사 광고 후 김영환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2019년 동 기구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회장 이종명 목사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 △서기 권캐더린 목사 △감사 최재복 장로 △고문 황동의 황영진 박진하 전희수 유상열 목사 △상임자문 김인한 장로 △자문위원 방지각 최창섭 양승호 김홍석 정순원 이봉삼 김영환 목사 △법률자문 천일웅 변호사 △홍보국장 육민호 목사 △기획국장 임병남 목사 △국제국장 이희선 목사 △국내선교국장 박성원 목사 △해외선교국장 이지용 목사 △협력국장 윤숙현 조상숙 목사 △봉사국장 안경순 김사라 목사 △간사 이찬양 선교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9 첫 정기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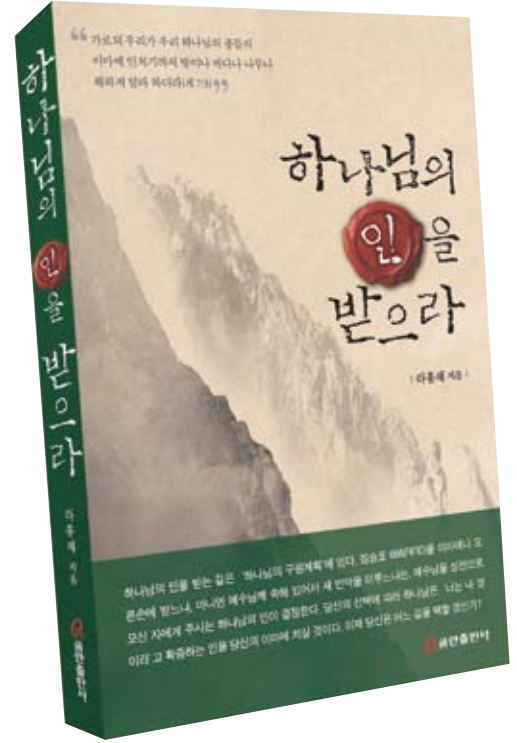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019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작은 교회 세우기' 표어로 연합

## 제 41대 OC목사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찬양예배

제 41대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김근수 목사) 회장단 이취임식 및 찬양예배가 3일 오후 5시 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정찬 목사)에서 열렸다.

김근수 회장은 "오늘 목사회 이취임식이 찬양예배를 겸해서 열리게 됐는데 예배를 통해 목사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서 감사한다"며 "목사회가 해야 할 일은 같이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시대는 연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목사회 목표를 '작은 교회 세우기'로 정하고 한 해 동안 교회들을 섬기는데 더욱더 힘써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OC목사회 41대 이취임식 및 찬양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맹훈 목사, 박정기 목사, 그리고 최양순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기도했으며 OMC미션콰이어가 찬양했다.

이어 남상국 목사(40대 OC목사회 회장)가 이임사를 했

며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찬양했다. 또한 김근수 목사가 취임말씀 및 새 임원을 소개했으며 41대 임원들이 특송을 불렀다.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에서 강사 신성욱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프레임 만들라"

##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 강사 신성욱 교수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가 마음이가난한 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성욱 교수는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점은 스톱워딩적인 설교 △설교자 자신과 청중의 행함이나 순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설교 △인물 중심적 관점이나 하나님 중심적 관점 중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 △본문 저자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지 못하는 설교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치중하는 성경공부식 전달 △논리와 감동이 부족한 설교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흔히 들여다보이는 제목과 내용 △기억하기도 힘든 복잡잡한 설교의 대치 △설교의 전달(음성의 고저, 장단, 강약, 음조, 톤)이 너무 단조롭고 식상하게 전개 △적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 △원고에 매

이는 설교전달 △원고작성에 거의 모든 시간이 투자되므로 내용숙지와 실습의 여유 없음 등"이라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 설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대지 방식의 설교는 논리적이지만 비성경적이고 덜 성경적일 때가 많으며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이 빠지거나 때때로 많이 예배 후 설교자와 청중들이 설교내용을 기억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본문으로부터 한 문장의 뚜렷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추출하는 것 △설교의 내용을 미리 다 알려주는 제목이 아닌 궁금증을 유발시킬 제목을 활용해야 하며 그것을 처음이 아닌 결론 부분에 가서 공개하는 것 △결론 부분에서 공개하는 제목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워싱턴, 오리건, 남가주, 네바다, 하와이

## 한국대학합창단 2019 미주 순회콘서트

서울 및 수도권 성악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인 한국대학합창단(지휘 박동희 교수)의 2019 미주콘서트 가 워싱턴, 오리건, 남가주, 네바다, 하와이 등 미서부지역 교회와 너싱홈 등에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열렸다.

남가주동문회(회장 김중숙) 주최로 2월 1일부터 5일까지 남가주 일원에서 열린 한국대학합창단 공연은 1일 오후 7시 30분 새생명침례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2일 오전 10시 시스터 오브 세인트 조셉 너싱홈, 3일 오전 10시·정오 패서디나장로교회(담임 이동우 목사) 예배, 3일 오후 2시 글렌데일 제일복음교회(담임 시양 양 목사), 오후 7시 패서디나장로교회에서 공연했다. 2일 시스터 오브 세인트 조셉 너싱홈에서 연주회를 가진 한국대학합창단의 지휘자 박동희 교수(강릉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한세대 음대 겸임교수)는 "이번 공연을 위해 23명 학생들과 함께 왔다"며 "공연은 주로 교회와 너싱홈에서 했는데 포틀랜드의 너싱홈에서는 설날잔치로 음악회를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오늘은 은퇴하신 수녀님들에게 하나님 사랑 나누는 것을 중점을 두고 연주했

다"며 "연주회가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에 충실히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합창단은 지난 1966년 5월 창단돼 각종 합창경연대회에서 입상했고 다양한 합창 작품을 갖고 정기연주회와 전국 순회연주를 해왔다.

한편 7일부터 11일까지는 하와이에서 공연을 하게 되며 합창세미나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목사)에서 연주회와 함께 가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 성가를 시작으로 여성중창, 남성중창, 복음성가, 영가, 한국음악을 비롯해 현대합창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무대를 펼쳤으며 이번 공연단은 단원 23명과 지휘자, 스태프를 합쳐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주 공연은 매 3년에 한 번씩 이뤄졌으나 올해 5년 만에 10번째로 공연했다.

(박준호 기자)



시스터 오브 세인트 조셉 너싱홈에서 열린 한국대학합창단 미주 순회공연에서 합창단원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서부교회 게시판

## 센터사역원, 목회자 성경방 개설

센터성경사역원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는 오는 2월 18일(월)부터 5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목회자 성경방을 개설한다.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등 사역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교재는 성경을 기본으로 '어?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발행하는 신/구약 워크북, 신/구약 네비게이션을 사용한다. 강의 장소는 하늘소망교회(3416 W. 1st. LA).

▲문의: (213)500-2948, 이메일 dock.kim@biola.edu

##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계창조선교회(WCM)가 주관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프로그램이 4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열린다. 그랜드캐년 및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을 관람하면서 일반 관광보다 훨씬 흥미롭고 유익한 과학지식을 배우며 성경적 진리를 확신케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www.wcmweb.org

▲문의: (503)330-2981, 이메일 info@wcmweb.org

## 사춘기-청소년 부모를 위한 무료 세미나

총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가정사역위원회에서는 사춘기-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9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교육관 2층 벨빌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임상심리학 박사이며 가정사역 지도목사인 김경준 목사와 바이올라대학에서 다문화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윤정 웰드미션대학교 교수. 세미나는 모든 한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818)549-9191

## 산타페상당소 오픈기념예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부설 산타페상당소 오픈 기념예배가 12일(화) 오후 5시 본교 채플실에서 열린다.

▲문의: (909)767-9590

## 배우 김수미와 함께하는 간증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배우 김수미와 함께하는 간증집회를 13일(수)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808)536-7244

## 나성한인교회 김브라이언 찬양집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형제 찬양집회를 10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교회 Hillside Chapel에서 갖는다.

▲문의: (323)221-9531

## 박종호 찬양 간증집회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는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찬양 및 간증 집회를 16일(토) 오후 6시에 갖는다.

▲문의: (310)326-0300

## 소중함교회 설립 8주년기념 감사예배

소중함교회(담임 김기동 목사 18821 Yorba Linda Blvd, Yorba Linda) 설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0일(주일) 오후 3시에 갖는다.

▲문의: (714)990-9191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부흥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이승준 목사) 부흥회가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목, 금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6시다.

▲문의: (626)912-6600



남가주감리교 원로목사회 신년하례식 및 원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남가주감리교 원로목사회 신년하례식

남가주감리교 원로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1월 월례회가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영대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인기 목사가 기도했으며 김도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김영모 목사

가 축도했다. 예배 후 열린 신년하례식을 겸한 월례회는 김영대 회장이 환영의 말씀, 회원동정 등을 전했다며 이인기 총무가 고호균 목사 등 1월 생일회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후 김민희 목사가 2018년 12월 회계 보고 했다.

남가주감리교 원로목사회 2월 모임은 11일(월) 오전 11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갖게 된다. 다음은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임원 명단이다.

△회장: 김영대 목사 △부회장: 민병열 목사 △총무: 이인기 목사 △서기: 장피터 목사 △회계: 김민희 목사 (기재공: 남가주감리교 원로목사회)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말씀성회에서 강사로 참여한 장경동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착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자녀 되는 게 중요"

## 주님의영광교회, 장경동 목사 강사로 말씀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성회를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했다. 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셋째 날 말씀성회에서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담임)는 '주여'(눅 9: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부자에 대해서 4복음서에 다루지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은 3번, 마가복음은 2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요한복음에 부자를 다루지 않은 것은 요한은 부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라며 "반면 누가복음에는 10번 다루지는데 그것은 누가 부자이고 의사여서 그런 거 같다"고 언급했다.

장 목사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자가 천국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이건 가난한자이건 사람의 힘으로 천국갈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의미"라 말했다.

그는 "성경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부자이면서 천국간 자, 가난하지만 천국간 자, 부자이지만 지옥간 자 그리고 가난하면서 지옥에 간 자"라 언급하며 "가난하지만 지옥간 자로는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다. 가난하지만 천국간 자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부자이지만 지옥에 간 자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온 부자를 들 수 있으며 부자이면서 천국에 간 자는 노아, 아브라함, 사게오를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라 설명했다.

또한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것은 있지만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착하게 사느냐 여부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는 첫날 '기도'(막 1:35), 둘째 날 '후손'(창3:15), 셋째 날 오후 1시 '단계'(요 3:5-7), 그리고 오후 6시 '건강'(요삼1: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보나기획 모닝스타 에듀케이션센터 공동 주최 2019 신년음악회 한국가곡과 동요의밤에서 전출연자들이 공연을 마친후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2019 신년음악회 '한국가곡과 동요의 밤'

## 보나기획-모닝스타에듀케이션센터 공동 주최

보나기획(대표 이해자)과 모닝스타 에듀케이션센터(디렉터 나영자)가 공동 주최한 2019 신년음악회 '한국가곡과 동요의 밤'이 2월 1일 오후 7시 지퍼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소프라노 김중숙 씨와 테너 양두석 씨 사회로 열린 신년음악회는 코헝가어린이합창단(지휘 이해자) 동요메들리로 시작해 소프라노 노혜숙, 이글라라, 김중숙, 지경,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조지영, 테너 오위영, 두영근, 양두석, 전피터, 바리톤 크리스토퍼 방, 김철이, 베이스 장상근, 장진영, 그리고 보첼레스티 합창단(지휘 글로리아정안)이 무대에 올라 한

국가곡과 동요를 불렀으며 사나 폴라데, 카라 친, 김정현 어린이가 어린이 독창자로 그리고 어린이 풀무티스트 최혜연 어린이의 무대도 함께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전출연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른 뒤 마쳤다.

한편 이날 조민구 LA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김정자 신년음악회 한국가곡과 동요의 밤 운영위원장, 그리고 나영자 모닝스타에듀케이션센터 디렉터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과 디어빌리티 오케스트라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옹호 즉각 중단하라”

####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성명내고 종교자유 대학자율권 촉구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구 한국기독교유권자연맹)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도덕하고 폐해가 극심한 동성애와 다자성에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해 확산시키

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성애와 다자성에, 성매매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방하자는 주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국가인권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성경적 가치기준으로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바르게 선택할 목

적으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했다.

연합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인을 지지, 발굴하기로 했다.

또 기독교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반(反)사회적 가치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을 한다.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우리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동참시킬 방침이다.

### 100년 전 그날 독립만세 되짚다

#### 연휴 가족과 볼 만한 기독교방송 프로그램

기독교 방송사들은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웃음과 나눔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3·1운동의 의미와 역사 속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도 볼 수 있다.

CBS는 낙도 및 오지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준비했다.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어촌 주민들의 생업을 도우며 19년간 사 람 낚는 어부로 사는 이정열 원산도감리교회 목사, 경남 통영시 죽도에서 섬 주민의 마음을 열기 위해 택배 발송부터 도 배 등 마을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한광열 죽도교회 목사 등의 이야기는 심금을 울린다. 4-5일 오전 9시10분 방영.

3·1운동 전후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도 볼 수 있다. 당시 인구의 1.5%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용정 3·13 만세운동과 이를 가능케 했던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 등을 집중 조명한다. 4-5일 저녁 8시 방송.

CTS기독교TV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세워진 교회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100년 교회를 찾아서’를 기획했다. 여성 애국지사를 배출한 연동교회,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집결지가 된 승동교회를 찾아가 역사의 흔적을 되짚어본다. 1일과 8일 낮 12시 방송.

독립 운동가이자 여성 교육의 선구자인 김마리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열사 김마리아’도 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남다른 민족의식을 형성했던 김마리아는 일본 유학 시절 2·8 독립 선언 운동을 준비했으며 대한 독립에 밀알이 됐다. 2일 밤 10시 방송.

CGNTV는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선교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을 준비했다. 클레이튼 커쇼(LA다저스 투수), 트레이 힐만(전 SK와이브스 감독), 이영표(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등이 주인공이다. 5-6일 밤 10시50분 방영.

3일 오후 6시20분 방송되는 ‘표인봉, 유윤선의 하늘빛 향기’에서는 다동이 아빠 개그맨 오지현씨가 출연해 삶을 나누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크리스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존의 대화를 그린 드라마 ‘그레이스 앤 그레이티, 은혜의 종려’는 가족이 함께 볼 만하다. 2일 밤 9시20분 방영.

C채널방송에서는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다시 볼 수 있다. 2-3일 저녁 10시 30분 방송.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00년간 토론하는 대담을 준비했다. 1부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2부는 ‘복음적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3부는 ‘3·1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방송 시간은 4-6일 오전 8시 30분.

글로벌선진학교의 지난 유럽대회 동행 취재 기록을 담은 ‘C채널스페셜 글로벌 선진학교를 가다’도 시청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세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4일 오전 9시30분 방송.

### 수의, 삼베옷 대신 평소 아끼던 예쁜 옷...

#### 하이패밀리, 기독교 장례문화 운동 시작

장례식의 ‘삼베 수의’ ‘유족 완장’ ‘국화 헌화’ 등이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가 일제 관습 탈피를 넘어 ‘천국 소망’을 제시하는 기독교 장례문화 운동을 시작했다.

하이패밀리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퇴계로 고후나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장례 대안을 제시했다. 송길원 공동대표는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장례문화는 시급히 고쳐야 한다”며 “교회는 기독교 장례문화를 통해 상심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제 관습이 남아있는 장례 문화가 알려진 것은 최근 서울 시와 서울시설공단이 ‘빼앗긴 길, 한국 상·장례 문화의 식민지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시회에서다. 전시회 자문을 맡은 김미혜 서라벌대 장례서비스경영학과 교수는 30일 국민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뒤 그 서

려움에 삼베옷을 입었다는데서 유래한다”며 “이후 삼베옷은 죄인들이 입었다. 일제는 삼베 수의를 확산시켜 비탄 등을 공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조상들은 생전에 고인이 입었던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묘를 이장할 때 발견된 수의는 비단이나 명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복색이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일제는 장례식 등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할까 봐 완장을 채워 장례식의 주최자와 참석자를 구별했다”며 “국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수파련이라는 꽃이나 병풍을 장례식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일장도 일제의 장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생긴 것이다. 원래는 최소 100일에서 삼년상을 치렀다.

이에 따라 송 공동대표가 담임하는 청량교회는 성도들의 뜻을 모아 ‘기독교 장례 절차’(아래 표 참조)를 제정했다. 중심 성구는 시편 116편 15절과 잠언 14장 32절이다. 장례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린다.

허겁지겁 치르는 삼일장이 아닌 준비된 장례로 치른다. 교회 성도들은 임종 후 24시간 동안 가족끼리 충분한 애도와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병원 장례보다는 교회의 가족장을 우선한다.

염습은 병원 또는 장례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한다. 수의는 삼베옷 대신 고인이 즐겨 입은 평상복이나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힌다. 성경에서도 삼베옷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입는 옷으로 상징된다. 화환과 꽃 장식보다는 구절이 담긴 ‘메시지 병풍’으로 격을 갖춘다. 영정 사진 외에 고인의 사진을 전시해 그의 삶을 빛나게 한다. 헌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가 아닌, 고인이 좋아한 꽃 등으로 장식한다.

김향숙 공동대표는 “교회는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정 사역의 완성”이라고 전했다.

하이패밀리는 오는 18일 경기도 양평 서종면 가정사역종합센터 ‘W-스토리’에서 ‘해피엔딩스쿨’을 개최한다. 교회를 대상으로 ‘상(장)례 문화의 개선 지침’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다.

### “발자취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에 감사...”

#### 10일 해군·해병대교회 70주년 기념예배, 새로운 70년 향한 다짐

해군·해병대 70주년 기념예배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해군중앙교회(정기원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창립 70주년 기념 축하, 3부 세미나, 식사 및 친교 순으로 진행된다.

제29대 해군군중병과장 이기원 목사가 ‘더불어 사는 즐거움’(전4:9-12)이란 제목으로 전할 예정이다.

김기홍(군속 55년)장로와 박

병용(군속 65년) 권사는 해군·해병대교회 최장기 군속 감사패를 각각 받는다. 또 해군·해병대교회 최장기 후원교회인 구룡포침례교회(35년 후원은 감사패를 받게 된다.

한국군중목사단장 노명현 목사와 공군군중목사단장 이일우 목사는 각각 축하와 격려사를 전한다. 세미나에서 권오훈 목원대 교수는 ‘사회적 교회’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행사는 해군·해병대교회 총회, 해군군중목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해군·해병대교회 총회는 초청의 글에서 “한국교회 군군교 사역은 군복제도 수립 2년 전인 1948년 9월 15일, 당시 이화여고 교목이던 정달빈 목사가 해군중위로 임명하여 군복업무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또 “최초의 군인교회는 1949년 2월 5일 해군과 육군 가족 15명이 모여 서울 용산의 해군 중령 김대식의 관사에서 예배 드린 날을 모체로 하고 있다. 그 최초 군교회의 역사는 지금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 중앙교회가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군, 해병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명실상부한 군인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세계에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해병대 교회는 앞으로 70년을 소망하며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dauidnjon@yahoo.com

5면에서 계속)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인격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교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스승에게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이 선생님께 주먹질 하는 기사를 보게 된다.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서 자기가 지금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다. 내 아버지가 못된 인간이라고 해도, 내가 싫어도 인정을 해야 하고 좋아도 인정을 해야 아름답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스승을 스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제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님을 스스로 공표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기원은 누구인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나를 낳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모르면 결국은 짐승수준으로 전락을 하고 마

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된다.

복된 신앙의 인격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잘 나서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 오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세상의 삶도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아는 신앙인이어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했으면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 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리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비록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적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복

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살지만,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신앙의 인격으로 사는 길이다. 이것은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과연 이것은 아름다운 삶이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 교도소 선교칼럼 (5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구조

저스틴 렌지니는 부드러운 음성의 리더였다. 그녀가 자살하려는 재소자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저스틴 렌지니

1998년 1월에 나는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형량을 선고 받은 다른 이들은 2주 내에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영문을 모른 채 나만 여전히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남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갈망했으며 열심히 순종했다. 그래서 이동이 지연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성경을 읽은 후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새로운 재소자가 자기 상자를 들고 내 옆방으로 들어갔다.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내 방에서 자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간수에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는 그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심폐 소생술과 응급처치술 클래스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었다.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지만 그날따라 수업내용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났다. 그리고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난 축 늘어진 여자에게 기억나는 대로 응급조치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돕기 위해 나를 사용한 것이었다.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려 할 때 한 간수가 들어왔다.

“여기부터 내가 처리할게요. 이제 방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자살을 기도한 그 젊은 여인을 위해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다.

약 한 시간 후 그 간수가 내 방으로 왔다. 만약 내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었을 거라며 내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안도와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훗날 그녀의 자녀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속적인 상담 후에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나는 그 곳을 떠나 새로운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것으로 내 이감이 왜 지연되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원래 용감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진실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드린다.

약 1년 반 후 나도 딸이 가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 살고 싶은 맘이 사라졌다. 모든 걸 끝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 경험을 상기시켜 주셨고 내 곁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고마운 이들을 보내주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느 날 자살충동이 극에 달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시체를 발견하는 게 끔찍하게 여겨져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자살은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마귀는 사람들의 기쁨과 생명을 훔치고 파괴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유혹한다. 이제 나의 형기는 9개월 정도 남았고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 그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간증을 나누길 기망한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 부디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구하십시오. 마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살하겠다는 위협은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변의 그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해결의 일부분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 뿐이라면, 그 기도를 지금 해야 합니다.”

# 선교 편지

## 니카라과

1신  
총회탐방팀 세미나 인도

용해주심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전도와 선교위원회 박경희 목사(위원장), 최무림 목사(실행위원), 신윤희 목사(실행위원) 세 분이 선교지 탐방 차 지난 1월 21일 니카라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아제일교회에서 목회자, 리더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22일 최무림 목사(“예수님의 영성”), 23일 신윤희 목사(“이단 연구 비판”), 24일 박경희 목사(“예수님의 교육방법”).

22일 신산장로교회 화요일예배 설교를 최무림 목사가, 24일 예수님의 마음교회 목요일예배 설교를 신윤희 목사가, 27일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박경희 목사가 하였습니다.

총회 전도와 선교위원회 방문과 심의를 통하여 선교사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현지인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새롭게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신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 의의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 선교부 주관으로 지난 2007년 1월 10명의 노회원들이 노회 산하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볼리비아와 니카라과 선교 탐방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정기 노회에서 니카라과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선교대회를 통하여 모금하여 2008년 2월 22일과 23일 마사아 전도대회를 마사아공설 야구장에서 개최하여 484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었을 때 계속 전도대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계속 이어져서 재정 문제로 지난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9번의 전도대회를 통하여 지난 2018년까지 연인원 166,000명 참석에 5,245명의 결신자를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인 2018년에는 마사아는 물론 수도인 마나구아 남서쪽 지역인 상 라파엘 델 수르지역에서도 전도대회를 개최하여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오는 2월 22일과 23일 10번째로 개최되는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작은 뉴욕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사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는 그리 큰 노회도 아니고 재정은 이웃 뉴저지노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작은 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노회가 선교지에서 10번이나 대형 전도대회를 주관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크게 사

둘째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서 참여하는 연합단기탐을 통하여 니카라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전도대회에는 뉴욕노회 산하 10교회가 모두 11곳의 전도대회 부스를 설치하여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통하여 828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당시의 사역들을 모델로 계속하여 많은 부스들을 개설하여 섬겨 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세미나/교사강습회/개인전도/중보기도/치과사역/의료진료/안경사역/미용사역/네일사역/어린이사역 등을 통하여 무더위에도 사랑과 공물을 가득 담은 진실한 섬김이 저들의 상한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셋째로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건강한 전도대회입니다. 2019년 전도대회에도 단순히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산하 교회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뉴욕, 로드아일랜드, 토론토, 뉴저지, 시카고, 올바니에서 모두 83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지난 2008년 전도대회 이후 이제까지 전도대회 기간 중 단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믿기로는 성령님의 보호 하심과 기도해 주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여깁니다.

넷째로 선교사들의 협력 가운데 전도대회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매 전도대회 때마다 니카라과 한인 선교사들이 단순히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번 10가정 이상의 선교사들이 사역으로, 통역으로 뜻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전도대회에 이어 오는 24일 거행되는 장로교회 연합세례식에도 세가 개척한 장로교회를 뿐만 아니라 한인 선교사들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흐뭇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니카라과 사태로 인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535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5,000명을 넘는 등 큰 아픔과 상처도 채 아물지 못한 채 폭압정치가 여전한 가운데 치러지는 전도대회입니다. 특별히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니카라과 사태에서 가장 사상자를 많이 낸 마사아주와 가라소주에서 개최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 찢겨진 상처 아무만져 주시며 교회와 심령이 소생함을 얻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전도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동홍 선교사  
missionnica21@gmail.com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영 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영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ton, MA 01748	<b>살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대림절찬양: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찬양회: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x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44 ■ Fax. (718)886-4444 ■ Tel. (718)886-4444 ■ Fax. (718)886-444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 (4)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부장)

(4)선교는 신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나 선교적 교회가 되는 길은 전적인 목회자의 선교비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각 노회가 추천한 목사후보생을 교육하는 신학교가 성경을 통하여 선교비전을 나누며 사도행전 즉 선교행전을 확실히 가르쳐 모두가 선교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관계를 잘 가르치므로 바른 선교 즉 건강한 선교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인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양육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

### 7. 브라질 GMS신학대학

1982년 2월 브라질 파송선교사로 명받고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도시빈민을 상대로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쳐왔는데 그 많은 사역 중 한 번도 떠나지 않고 37년 동안 지속해온 사역이 신학교 사역이다. 교수로 또는 신학교 운영자로 세움을 받고 섬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브라질GMS신학교를 비롯한 한국인 신학교는 전통적인 한국 신학교 커리큘럼을 따라 운영하였고 주로 선교사들과 바쁜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브라질을 방문한 목회자들의 특강으로 학교를 운영하므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신학교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나마 장로교 보수신학교고 집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변동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한국인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말았다.

브라질 지부 공동사역으로 시작한 브라질GMS신학교는 대표권을 주장하며 지부 전체결의와 한국 본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브라질 총회신학운운하면서 개인화 하려는 모 선교사의 불결의 투쟁으로 인하여 GMS 이사회는 곤란에 처했다. 총회적으로 현금을 모아 쌍파울에 교사까지 마련한 GMS이사회는 모 선교사를 설득하다 안되어 재판국을 설치 마침내 선교사를 면직하고 재산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필자에게 과도기 과정 속에 학장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 학장직을 수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당시 GMS이사장(시은소교회 김성길 목사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해 학장직을 수락했다. 법정투쟁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자칫하면 두 개의 신학교가 생길 수 있기에 필자의 선교사역장인 디아스포라 선교부 건물에서 학장제 주말 브라질GMS신학교로 출발했다.

브라질남부지부 브라질GMS신학교는 한 달 안에 한 과목을 20시간 집중적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가르치는 교수가 미리 강의안을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후 강의하게 하였고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며 특별히 실천신학은 브라질 현지인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전문사역자들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전도학은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가르치고 동 협회가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무행정은 계리사가, 교회음악은 전문 음악인들이 이론보다 사역장에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졸업 후 2년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 목회수련을 받은 후 자신의 사역을 소논문으로 작성한 후 사역장이 있는 사람에게 목사고시 치를 자격을 주고 합격한 이들에게 GMS시니어 선교사와 노회목사가 협력하여 면접시험을 치른 후 목사안수를 주고 있다. 이제는 본교 출신 목회자들이 함께 동참하여 목사고시와 안수식을 함께 거행하고 있다.

### 8. 브라질GMS신학대학의 변혁과 갱신

브라질GMS 신학대학은 선교사역지에 필요를 채워주는 신학교가 되기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상황과 문화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것도 있지만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교권과 세속화로 말미암아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 현대교회의 변화는 신학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변화와 갱신을 시도한 것이다.

### 1)날짜변화-매일신학을 주말신학으로

매일신학을 주말신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이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매일신학교를 주말신학교로 변경하였지만 이것이 현재 브라질 문화와 상황에 맞는 제도이며 양질의 학생과 좋은 교수들을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운영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해주었다.

홍보하지 않아도 브라질GMS장로교신학대학이라는 간판만 보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비롯한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지도자들과 목회를 소망하는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경찰 간부, 변호사, 계리사 등 좋은 직업을 가진 직업인들이 열심히 수업 받고 있으며 브라질 성결교 지방회에서는 자기들의 신학교가 없으므로 지방회 결의로 소속 전도사들을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5년의 과정을 마친 후 졸업고시를 치른 후 합격한 자들을 동 노회가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여 목사로 각각 세웠다.

또한 앙골라, 파키스탄, 아이티, 볼리비아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주중에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주말에 학업을 하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학위를 획득하고 목사안수

를 받아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다 낱씨의 변화가 공부할 여건과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 2)학위중심에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

브라질GMS신학대학은 학위중심에서 균형잡힌 성경공부와 함께 사역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 점점 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있다. 성경교사 자격증, 어린이 전도사 자격증, 통역사, 가정상담사, 번역사, 영성선교사, 스테디 관광 자격증 등 전문인 영역을 개발하고 성공회의소를 비롯한 전문단체들과 MOU를 맺음으로 수익성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 3)남미아태아대학원 성경대학교 개원

함께 성경을 쓰고, 장절을 나누어 분해하고, 함께 각 장마다 목상일기를 쓰고 나누고, 성경 각권 각 장별로 강해 또는 설교 한편을 만들어 각 권마다 논문집처럼 제자를 만들어 한 권은 학교에 또 다른 한권은 자신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실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안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올바른 예배 자가 되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경만을 가르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한다.

목회자가 아닌 전문인 성경교사(각 성경마다 교사증 부여-마태복음 마친 이에게 마태복음 교사) 자격증을 부여 가정사역자를 배출한다. 신구약 성경 중 20권을 마친 자에게 성경학사, 40권을 마친 자에게 성경석사, 66권을 마친 자에게 성경박사란 특별학위를 주는 학교를 꿈꾸고 있다. 이 학위는 일반학위와는 차별된 학위이다

### 나가는 말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교회의 비리와 성공회 목사들의 오만과 사치와 부패가 들어남으로 교회는 힘을 잃고 조롱과 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교회 목사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으며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러한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 가운데서도 목사나 선교사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감각하다. 내 환경과 내 밥통만 건드리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개인주의 영향으로 오늘의 교회는 끼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GMS 선교부를 비롯한 각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해 선교하는 진실한 선교사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미국을 비롯한 이민교회에도 선교사는 번거로운 손님이 되어가고 선교운동은 그 열기가 식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사회 전반에 나타난 총체적인 현상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한국 및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의 대형교회의 종교재벌의 실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질도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기만 한다. 오늘날의 신학교는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해야겠기에 발제안으로 내놓는다.

ALLS운영위원회와 아태아대학원은 지역신학교와 선교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바라기는 아태아대학원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른 신학 바른 신앙운동을 펼쳐 나가길 소원해한다.

(끝)

kangsungchuel@gmail.com



## 드라마 구약 (2)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출애굽하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성경은 한 장이 넘어가지만 시간은 430년이 지나갑니다. 430년동안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야곱 가족을 장정만 603,550명,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산으로 약 20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의 국가급 인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민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히소스 왕조였습니다. 히소스 왕조는 애굽 본토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민족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고, 요셉 덕분에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본토인들이 히소스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순수한 애굽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까지 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레위지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때 갈대상자 속의 모세는 바로의 딸인 하셉수트에게 발견되어 건짐을 받습니다. 하셉수트는 바로의 공주였지만 권력욕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 모세를 입양하게 되었고, 모세를 장자 애굽의 바로로 세우면서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사람 한 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을 가야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얽혀져 있었습니다. 바로는 권력욕심이 많았던 하셉수트의 양아들이인 모세가 늘 눈에 가시거리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간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막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현관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 pass over’ ‘유월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고 약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시내산에서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드신 하나님,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의 3가지 사건을 기억하자”

보내십니다.

그 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시며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와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그 3가지는 언약, 법, 성막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임마누엘하시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셈입니다.

율법의 기본 법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의 내용이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의 내용이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과 함께 거하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의 증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이름의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이라는 말의 뜻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장소를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룩한 장막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고, 그것을 지어서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우리는 다음 성경목적인 민수기로 이동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평원까지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봅시다.



# 영어로 보는 성경 (5)

##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 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 Leviticus 17:11

11) For the life of a creature is in the blood, and I have given it to you to make atonement for yourselves on the altar; it is the blood that makes atonement for one's life. (NIV 1984)

#### WORD & IDIOM

\* creature: 피조물 \* blood: 피 \* atonement: 속죄 \* yourselves: (yourself의 복수) 너희들 \* altar: 제단

#### GRAMMAR

For the life of a creature is in the blood, and I have given it to you to make atonement for yourselves on the altar. 왜냐하면(10절 내용에 대한 이유) 피조물의 그 생명이 있다 그 피 안에 나는 주었다 그것(피) 너희에게 만들기 위해 속죄 너희들을 위한 제단 위에서 ⇒ 왜냐하면 피조물의 그 생명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제단위에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그 피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 the life of a creature is (in the blood)=주어(S)+동사(V)로 이루어진 1형식의 문장이다. 이때의 be 동사는 '~ 이다'가 아니라 '~ (에) 있다'로 해석한다. in the blood는 전치사구로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수식한다.

예) The Holy Spirit is in me(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 and I have given it to you to make atonement for yourselves on the altar: 이 문장에서 I have given it to you는 현재완료시제이며, to make는 너희에게 피를 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을(를) 만들기 위해서란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을)를'에 해당하는 to 부정사(to make)의 목적어가 바로 atonement(속죄)이다. 'for yourselves on the altar'는 atonement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수식어구이다.

#### It is the blood that makes atonement for one's life.

가주어 이다 (그) 피 (그) 피 만들다 속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 사람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피다.

\* 이 문장은 'It is ( ) that ...'의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강조하는 대상이나 어귀를 ( ) 안에 넣고 that(who, which)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the blood 다음의 that은 관계 대명사 주격적용법으로 쓰였다. 논리상 that의 선행사는 the blood가 아니라 앞의 It이지만 that 다음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It가 아니라 the blood와 일치 시킨다.

\* 'It is ( ) that ...'의 강조형태의 문장과 진주어가 긴 절로 이루어졌을 때 가주어 it를 앞에 놓는 형식의 문장, 즉 'It ~ that ...'의 문장과 다른 점을 유의하라. 이때의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이다. 'It is the Lord who loves me'는 <나를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주님을 강조하는 문장이고 'It is true that the Lord loves me'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의미의 '가주어(it)+술어+진주어(that~)' 형태의 문장이다. 강조형의 문장은 'It is ~ that(who, which)'을 빼도 문장이 성립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It is the Lord who loves me'와 'The Lord loves me'를 비교해 보라.

#### STUDY & THOUGH

■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3장 17절과 7장 26절에 이어 17장 10절 이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주어진 11절 말씀은 왜 피를 먹어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준다.

첫째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멸할 수 없음이고, 둘째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속죄를 위한 피가 그 중심이었다(히9:22).

■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동물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다. 피가 죄를 속하는 원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작정하심으로 세워진 것이며,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므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을 고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요6:54).

Life is contained in blood and sins can only be clean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왕상8:58)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엄청 납니다. 태평함을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다 이루어지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어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그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바른 길을 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고 "Keep"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은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그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바른 길을 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고 "Keep"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 화 여호와 앞에 나의 간구한 이 말씀(왕상8:59)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본문 59절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야윈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어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접촉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 수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왕상8:59-60)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라"라는 뜻은 매일의 필요한 것을 채워신다는 뜻입니다. "돌아보라"는 뜻은 칼 부정사로서 강조의 뜻으로 "반드시 채우신다, 반드시 달성한다, 반드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드러질 때 우리가 일할 때

다 하나님께서는 늘 필요한 대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 만민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뜻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목 그 계명을 지킬찌어다(왕상8:61)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사가 끝난 후 한 가지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늘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합하다"는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케 하라"는 히브리어로 "살롬"이며, 헬라어로는 "텔레이 오스", 라틴어로는 "페르펙

투스" 영어로는 "Perfect"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철저히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짐"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합해 연합될 때 온전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영광을 누리게 되고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합해 완전하게 되는 성도는 결국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한 풍족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 금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왕상8:61-66)

오늘은 성전봉헌식을 마음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가 성전에 안치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7가지 복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결론은 법도와 같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사와 권면이 다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희생제사는 "화목제(셀라암)의 희생"입니다(신27:7, 레7:15 참조). 성전을 봉헌하고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함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 토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왕상9:1-3)

본문은 솔로몬의 꿈속에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행동의 복을 주셨는데 성전건축을 마친 이때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까지 친히 오셔서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랑의 절정체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친밀한 열정을 갖고 오셔서 열심을 다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경청, 사마)"고 말씀하십니다.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3770 서울시 동부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대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무실)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대일) (절대인들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82)2-996-9998, Fax.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404-270)	<b>승중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219 (잠실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8-45 www.esincheon.org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303-50-1 www.anamj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제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대일): 오전 5:30(토/일/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1842-6881, Fax.(02)18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 인/터/뷰

## 최광언 목사(아르헨티나제일교회)

### “성도들 기도와 헌신, 섬김이 교회부흥 밑거름”

아르헨티나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광언 목사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축복성회에서 최 목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는 주제로 '브니엘의 축복'(창32:20-32),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출2:11-25), '최선을 다하는 자의 기적'(왕하13:14-21),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요 19:26-27) 등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다.

17일 저녁 첫 집회에서 최 목사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모든 식물을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을 대면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강권하며 뜨거운 회개와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했다.

모든 집회 일정을 마친 최 목사는 미국의 교계를 돌아보는 가운데 새롭게 이전한 본사를 방문했다. 때마다 발행인 이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향해 최광언 목사는 그동안 헌신하신 장영춘 목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발행인 김성국 목사의 새로운 행보를 축하하며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기자는 최 목사와의 짧은 만남의 자리에서 최광언 목사의 목회와 선교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30년이 지났고 내년 은퇴를 계획하고 있지요.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늘 함께 했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최 목사는 “지구촌 끝에 자리한 아르헨티나제일교회가 1969년에 설립됐고, 교회가 스무 해가 되던 해에 부족한 종이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쁨 부으심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셨습니다”라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제일교회가 희년을 맞고 있고, 이와 맞물려 자신의 목회 사역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

하는 최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다’고

제일교회는 아르헨티나에서 자타가 인정할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기도의 힘”이라고 단언하며 “예배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순신수범해 주님의 일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라

고 들려준다.

제일교회는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1991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라누스시에 첫 지교회인 라누스제일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초로 북쪽으로는 살타주 엠바르카시온과 인디오 마을 빠드레로스노와 휘지칼, 오란시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서쪽 국경주인 산후안시와 산루이스시에 지교회를 설립하는 등 곳곳에 지교회를 설립해 영혼 구원에 앞장 서왔다. 이 지교회 중 몇 교회는 법적으로 재



미주크리스천신문사를 방문한 아르헨티나제일교회 최광언목사와 정형심 사모

육함으로 지역사회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인재를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엔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고등학교까지 세워져 규모로나 실력으로나 이제 아르헨티나에

서 손꼽는 크리스천 학교로 자리매김 했다. 제일교회는 앞으로 대학교 설립까지 꿈꾸며 이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귀뜸한다.

제일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제일교회 수양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숙박시설과 아름다운 본당은 은혜의 산실이기도 하다. 유아부부터 시작해 장년에 이르기까지 1년 두 차례씩 열리는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은 맑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한다.

최 목사와의 짧은 인터뷰 시간 중에도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유년부 수련회 상황들이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자 최 목사는 감사를 연발했다.

이처럼 목회와 선교에 앞장서며 아르헨티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한평생을 드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최 목사는 “우리교회 이야기와 후후이 학교, 지교회 이야기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교회를 꼭 한번 와서 후후이 학교와 선교지들을 돌아보며 취재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는 말을 남기며 아르헨티나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 낙후지역 곳곳에 지교회 설립... 몇 교회는 자립 유, 초, 중, 고등학교 운영... 대학설립 비전 가져 1000명 숙박시설 갖춘 수양관은 은혜의 산실

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 뿐만 아니라 학원선교를 통해서 리더양성에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제일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후후이주를 품고 복음을 기초로 한 크리스천 학교를 1995년에 세웠다. 채플 시간과 아울러 최고의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



### 책 소개

## “야곱의 고백”

저자 이상기 목사 (LA 평강교회 담임)



의사의 진단이었다.

그 시절 이상기 목사는 달리는 자동차에도 뛰어 들만큼 모든 것이 절망 그 자체였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때 그를 세운건 모자란 수많은 이들의 기도. 기적처럼 하나님은 그

고 상처 많은 사람들 곁에서 용기를 주는 자가 되려는 몸부림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본서는 총 5부로 1부, 죽음과 삶, 2부 깨달음과 만남, 3부 평강교회, 4부 가족, 5부 이웃으로 구성됐다.

교회 이야기 등 미국에서의 삶의 이야기이고, 제 4부에는 가족 이야기, 제 5부는 선교와 사역 이야기로 재미있게 구성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 전쟁 중에 태어나 전쟁과도 같은 삶 간증담야

를 살리셨다. 이 후 그는 ‘나의 인생은 담’이라고 고백하며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자 목회자가 됐고, 외롭고 가난하

제 1부는 전쟁 속에 출생과 가난, 절망, 새 생명을 얻고 도미, 완치의 과정을 수록했고, 제 2부와 3부는 아내이야기, 평강

저자 이상기 목사의 글은 무겁거나 어려운 필체가 아니다. 모두가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으면서도 가슴이 진한 감동과 시원함을 안겨준다.

본서는 미주내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chelor of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Campus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usa@midwest.edu E-mail : wde@midwest.edu